

1950년대 정치균열과 반공주의에 관한 연구

—— 민주당의 등장과 진보당 이념을 중심으로 ——

김대환
(서강대학교)

1. 들어가며

가. 문제제기

해방 이후 한국정치와 북한정치-엄밀히 규정하면 한반도 정치-는 미·소 냉전의 강력한 규정력 속에서 상호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반공주의는 ‘48년 체제(극우반공체제)’ 이후 ‘61년 체제(개발독재체제)’를 거치는 동안 한국 사회체제를 지배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손호철 2011, 112). 또한 미·소 냉전으로 대표되는 ‘국제 냉전’ 구조는 한반도 정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국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한반도 내부의 ‘한반도 냉전’ 구조가 작동하는 원인이었다. 그리고 ‘한반도 냉전’은 한국정치 내부의 ‘국내 냉전’ 구조를 주조하였다.²⁾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냉전 구조는 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anti-communism)’³⁾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본 연구는 국내 냉전을 공고화하고 권위주의 정권의 핵심 이데올로기였던 반공주의를 정치균열(political cleavages)⁴⁾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권위주의 독재 진영인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민주화 운동 진영인 보수 야당과 진보당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화 운동 진영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여기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장하였지만, 이들의 주장 역시 반공주의에 기반을 두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었던 자유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적 가치를 지향했던 진보 세력조차 반공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요컨대 냉전 구조와 반공주의가 존재하는 한, ‘민주 대 반민주’ 정치균열 하에서 강한 반공지향성을 가진 정당 혹은 세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최장집 2002, 63-66). 이는 곧 반공주의가 국제-한반도-국내 냉전 구조 하에서 정당성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의 성격을 결정했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 결과 1950년대 반공주의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냉전-한반도 냉전-국내 냉전’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1950년대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의 등장과 반공주의를 다룬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1950년대 반공주의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여기서는 극우반공체제 하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부상한 반공주의의 속성을 검토한다. 둘째, 1950년대 보수 야당과 진보당이 주장했던 반공주의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연구의 핵심질문으로, 1950년대 보수 야당과 진보당의 반공주의는 질적 차이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의 반공주의가 제3세계의 반공주의나 서구의 반공주의와 달리 모든 좌파적 사고에 대한 금기라는 점에서(권혁범 1998, 11), 한국의 반공주의 특히 진보진영의 반공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방 후 70년간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반공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매우 풍부하다. 그런데 반공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반공주의를 1950년대 핵심이데올로기로 파악하고 있으나, 진보진영의 반공주의에 주목하지 않는다(문중섭 2007; 서중석 1999b; 손호철 1990). 또한 반공주의를 1950년대 핵심 이데올로기로 평가하더라도, 지배이데올로기를 일민주의로 파악하여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이념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후지이 다케시 2008; 2012).

다른 한편 1950년대의 반공주의를 다루지만 단지 당대 정치인의 정치사상으로 분석하여, 정치지형 및 균열구조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서중석 2005; 전재호 2013). 달리 말하자면 정치이념 또는 정치사상이 현실을 설명하고 정치적 행동강령을 규정한다는 점(정승현 2009, 260)에서 개인의 정치사상 분석뿐만 아니라 정당 및 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 거시적 관점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진영의 반공주의를 분석하고 있더라도,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진보진영의 반공주의를 부차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서중석 1999a; 손호철 1996). 이들 연구는 진보진영의 반공주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950년대 극우반공체제의 성립과 함께 강요된 이념적 획일성 속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아온 진보진영의 반공주의를 보수 야당의 반공주의와 함께 분석하여, 1950년대 한국정치의 이념 지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장규식(2014)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장준하를 비롯한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지식인들은 전체주의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파시즘 독재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보수야당의 극우반공주의와는 다른 자유주의적 반공주의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1950년대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을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

게다가 1950년대 진보진영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경우 진보당사건의 전개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난 진보당의 이념을 분석하거나, 조봉암의 민족주의, 평화통일, 사회민주주의의 현재적 의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서중석 1999c; 윤상현 2006; 이현주 2001; 전강수 2010; 정진아 2009).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난 연구라고 하더라도 1950년대 진보진영의 정치이념을 분석함에 있어 민족주의, 평화통일,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연구가 중심적인 경향인 점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진보진영의 반공주의를 살펴봄으로써, 진보진영이 반공주의를 대항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이념 지형이 반공주의에 의해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⁶⁾ 되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진보진영의 반공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1980년대 이후 새로운 대항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급진적 세력의 출현을 통해 정치균열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고려할 때 연구의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반공주의가 1950년대 진보 세력의 정치사회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주요 이념이었으며, 이는 1980년 이후 진보세력이 반공주의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다는 점, 진보 대 보수라는 부차적 정치균열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나. 분석틀

1950년대 정치균열과 반공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이 ‘국가 -

정치사회 - 시민사회' 라는 부문과 '냉전적 보수세력 - 자유주의 세력 - 진보세력' 이라는 이념적 지표(손호철 2011, 130)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계급투쟁에 특수한 효과를 갖는 정치적 지배체제(제습 2000, 73)"로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공간이며, 정치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면서 정치권력을 놓고 정치적 경쟁이 벌어지는 제도화된 공간이다(김수진 2008; 손호철 2011; 최장집 2002). 그리고 시민사회란 자율적 결사체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며 동시에 "생산관계 내지 '토대'로 환원될 수 없는 생산관계 이외의 사적 그물망과 결사체의 영역(손호철 2011, 47)"으로 여러 사회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투쟁의 장이다. 또한 이념적 지표는 기본적으로 이념적 지향점에 따라 '냉전적 보수 - 자유주의(개혁적 보수) - 진보'로 나뉜다. 그러나 본 논문은 1950년대의 이념적 지표를 극우반공세력(냉전적 보수세력) - 보수반공세력(자유주의 세력) - 진보세력으로 구분하겠다. 민주화 이전 자유주의 세력의 경우 자유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반공지향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50년대 정당체제를 분석한 연구와 한국 정당연구자들 역시 1950년대를 보수양당체제가 결빙된 시점이라고 파악하는 것처럼 1950년대 이념적 지표는 극우반공세력, 보수반공세력의 압도적 우위와 미약한 진보세력이라고 구분해야 한다(김수진 2008; 문중섭 2007; 유재일 1997; 최장집 2002).

나아가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지배 이데올로기만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이에 대항하는 저항 이데올로기 혹은 대항 이데올로기가 배태되기 마련이다(Larrain 1983, 89; 손호철 1996, 43).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반공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대항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혹은 대항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제 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항 이데올로기라는 분류를 통해 1950년대 반공주의의 속성을 규명한다.

2. 1950년대 반공주의의 특성: '파시즘적' 반공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 반공주의

가. '민주 대 반민주' 정치균열의 등장과 반공주의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북쪽에 진주한 소련군과 남쪽에 진주한 미군에 의해 분단되었다. 동시에 미·소 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그 결과 소(蘇) 군정은 북한지역에 친소공산국가 수립을, 그리고 미(美) 군정은 남한지역에 친미반공국가 수립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해방정국 하의 각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이념에 따른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고, 이는 좌우균열로 표출되었다.

이 시기 남한의 반공주의는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2개의 조류를 지니고 있었다(모리 요시노부 1989). 첫 번째는 일제시기 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면서 등장한 반 볼셰비즘(anti-bolshevism)이 냉전의 영향 속에서 미군정의 반공정책과 결합하면서 나타났다. 일제 시기 친일성향을 지녔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었던 한국민주당이 주도한 반공주의로 해방정국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측면이 강하였다. 두 번째는 신탁통치 논쟁 속에서 독립이라는 민족주의적 과제가 반공주의와 결합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반공주의는 한국독립당 계열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독립의 방식에 대한 투쟁이 민족주의의 외피를 쓴 반공주의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단정세력인 이승만과 한민당의 승리로 귀결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극우반공세력의 반공주의가 남한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⁷⁾ 그리고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소장과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어 반공주의가 국가차원에서 제도화되었으며, 반공주의는 헌법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로 자리잡았다. 국가보안법을 통한 반공주의의 제도화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익의 완전한 제거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극우반공체제의 완성과 동시에 좌우균열의 해체로 이어졌다.

이승만 정부를 비롯한 극우반공세력의 반공주의는 ‘반(反) 민주적’ 반공주의 - 파시즘적 반공주의 - 라고 규정할 수 있다.⁸⁾ 특히 1950년 4월에 있었던 ‘대한정치공작대상건’은 고문과 조작에 의한 ‘빨갱이’ 만들기, 정적의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연계설 제거(서중석 1996, 91-93) 라는 ‘반(反) 민주적’ 반공주의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즉 극우반공세력이 정권에 대한 반대세력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질적인 이데올로기 기반을 지닌 민국당 세력조차 “북 또는 공산당과 연루시켜 제거(서중석 1996, 93)” 하려 했다는 점은 증오와 불신이 이들의 반공주의의 기본 속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산주의가 민족과 조국을 부인하는 등 반민족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 반공주의를 주장(전재호 2013) 했던 이범석, 안호상이 일민주의를 체계화하면서 ‘한 핏줄’ 과 ‘일민의 통일성 및 동일성’ 을 강조(후지이 다케시 2008, 123) 하였다는 것은, 이승만 정부의 반공주의가 저항적 민족주의와 연결된 파시즘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⁹⁾

한편 자유당의 창당 과정 속에서 나타난 원내, 원외 자유당의 갈등 속에서 양우정이 “우리나라의 정치노선은 공산당 정치노선을 제외하고는 이 박사 정치노선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것 뿐(동아일보 1951년 11월 8일자, 2면; 강조는 인용자)” 이라고 말한 것은, 자유당 역시 파시즘적 반공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국민사상지도원을 통해 이병도가 제시한 ‘협동 정신과 타협주의’야 말로 전형적인 파시즘적 구호였다는 점은 시민사회 내 극우반공세력의 반공주의 성격을 보여준다. 즉 반공을 강조하면서, 협동조합의 조직을 통한 스스로의 생활 유지와 개선 향상을 추구하고 동시에 국가방침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을 부각시켰다는 것은 나치독일이 1차대전 후 반공주의를 제창하면서 강력한 국민통합을 추구했던 경험과 동일한 파시즘이라는 것이다(후지이 다케시 2008, 132-133). 뿐만 아니라 합법적 노조였던 대한노총은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일반노동단체와 달리 반공투쟁을 통하여 기존 노동운동을 분쇄하는 정치적 기능을 행사하는 노동단체적 성격을 띤 반공단체였다(서중석 1999a, 497).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노동자를 ‘일하면서 조국을 지키는 노동자’ 로 호명하면서 극심한 저임금 속에서도 반공투쟁을 위한 기금모음에 나서게 하거나 각종 반공대회에 일 순위로 동원했다(유범상 2015, 308). 이는 극우반공세력이 반노동자적 입장에서 반공주의를 외치고, 노동자들에게 주입시켰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결국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시민사회 내 극우반공세력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오, 불신, 민족적 쇼비니즘, 반노조, 반노동자적 태도 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며, 이것은 이들의 반공주의가 ‘반(反) 민주적’ 이고 파시즘적인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정부가 반(反) 민주적이고 독재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극우반공세력으로서 극단적인 반공성향을 표출했던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¹⁰⁾ 그리고 1955년 이승만 독재에 대한 유일한 정치적 대안임을 주장했던 민주당의 출범은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을

최초로 성립시켰다(김수진 2008, 107).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의 등장을 가져온 민주당의 창당은 반공주의가 당시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의미로 통용되었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민주당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의 갈등은 공산주의 전력이 있던 조봉암의 참여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특히 신당 발기취지문의 ‘사회정의에 입각한 수탈 없는 경제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보수반공세력의 반공주의의 대한 사고방식을 알게 해 준다. “‘수탈 없는 경제’ 운운은 사회주의라고 비난하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사촌’ 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호헌동지회 내의 혁신파에 대해 ‘사회주의자’, ‘제3 세력’, 나아가 공산당으로 결국 비난(慎道晟 1955; 서중석 1999a, 89에서 재인용)” 함으로써 보수반공세력의 반공주의와 이승만 정부의 반공주의가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자유민주파의 반대로 인하여 신당참여 및 반독재진영의 대통합이 난항을 겪자, 조봉암은 ‘신당 취지찬동’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성명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의 참여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으며, 전향한 공산주의자임에도 극우성향을 보였던 김준연은 “조봉암이 신당에 들어오면 자신은 단호히 탈퇴하겠다고 공언(서중석 1999a, 93)” 하는 동시에 “조봉암의 성명서가 사회주의적 색채가 농후한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사촌간이니 신뢰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서중석 1999a, 93)” 면서 거세게 반발하였다. 또한 영국여왕 대관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던 신익희가 뉴델리에서 조소앙을 만난 ‘뉴델리 밀회사건’을 통해 보수반공세력은 ‘제3 세력’의 침투를 경고하면서, 국회에서 ‘남북협상 중립화 배격 결의안’을 가결시키는 데 앞장서는 등 이승만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서중석 2005, 271-272).

결국 보수반공세력 중심의 신당창당을 주장한 자유민주파의 승리로 막을 내림으로써 민주당은 반(反) 독재, 반(反) 공산당을 주창하는 한국 보수야당의 시초가 되었다. 게다가 195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병옥이 “그(조봉암 - 인용자)는 여전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스탈린(Stalin)이나 김일성보다 나은 게 없는 티토(Tito) 체제를 수립하려는 망상을 갖고 있으며, 이승만이 헌법을 짓밟고 법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이승만을 지지하겠다(국사편찬위원회 2007)”라고 비난을 하였다는 사실 역시 보수야당의 ‘반(反) 민주적’ 반공주의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민주 대 반민주 균열 속에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원칙인 철저한 반공지향성 - 파시즘적 반공주의 - 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정치사회 주류의 반공주의가 반(反) 민주적 반공주의 즉 파시즘적 반공주의였지만, 시민사회 내 자유주의 세력의 반공주의는 보수적 반공주의 - ‘자유주의적’ 반공주의 - 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반공주의는 ‘사상계’에 참여한 지식인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가 “이름을 「애국」에 빌고 혹은 「애족」에 빌며 때로는 「반공」에 비는 이 도당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헐고, 공산주의 선전의 온상을 마련하는 반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張俊河 1956b, 17)”라고 절규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반공주의를 극우반공세력과 보수야당의 그것과 분리시키고 있다. 즉 ‘분단’으로 인해 극우반공세력과 더불어 반공일변도로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분리’라는 추체험을 통해 자신을 극우반공세력과 차별화시켜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실현되도록 반독재 투쟁에 나서게 한 것이었다(조경란 2011, 117-118). 이는 이승만 정부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반공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저항이데올로기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반에 있는 반공주의라는 점(박태균 2015, 27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국가가 민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일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결(缺)한 국가를 국가라 부를 수 없고 이를 등한한 정부를 정부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온갖 힘을 모아 지켜야 할 것은 민주질서이며, 우리가 반공투쟁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연유도 이에 있는 것이다. ...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이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판권이 발호치 못하도록 독재의 싹이 트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야 한다**(張俊河 1958a, 16-17; 강조는 인용자).

즉 정치적 자유주의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을 추동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반공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은 1950년대 시민사회 내부의 보수반공세력이 가진 일관된 입장이었다(정영진 2015; 조경란 2011). 그렇기 때문에 1956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발간된 『사상계』의 권두언인 “민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을진대 ... 억지와 농간으로 혹은 그 발현을 가로막고 혹은 이미 **발현된 의사가 변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 이러한 자들이야** 말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당 이상으로 민주주의의 파괴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張俊河 1956a, 13; 강조는 인용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시민사회 내 보수반공세력 역시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의 북진통일론이나 멸공 대신, 자주적인 통일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첫째로 그것 - 북진통일론 (인용자) - 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 둘째로 북진통일론은 민족적 정서에 맞는가 하는 점이 있다(朱耀翰 1958, 155).

첫째는 자립 없이는 통일을 바랄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자주성 없는 통일 기도는 더욱더 큰 비극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 국토통일은 우리의 지상목표이다(張俊河 1958b, 16-17).

한편 다음의 인용문은 1950년대 한국의 반공주의를 잘 표현하고 있다.

반공정책을 세운 것을 기회로 해서 자기정당 이외에 **다른 정당이나 자기당과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즉 자기를 반대하는 분자에 대해서는 **모두 가르쳐서 공산당이라 혹은 빨갱이라 하는 것으로서 농사를 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반대파를 제압하는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네의 반대파인 경우에는 공산당으로 몰아서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 아닌 공산주의자를 만들고 또 혹은 공산당 아닌 공산당이 생겼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민심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를 이반케 하며 대량적으로 공산당을 제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조봉암 1949, 128;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남한 보수진영의 반공주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친일파의 반 불세비즘이 해방정국과 단정수립을 통해 이들을 반공투사로 재정립시키면서 확립되었다. 친일경력의 우익세력은 해방 직후에는 ‘민족의 배신자’로 규정되었으나, 냉전이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을 ‘반공투사’로서 재인식하게 되었다. 즉 냉전이라는 구조적 조건과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

국의 수호자' 이자 '민족의 수호자'로 변신하였다. 결국 이들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뿐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에게도 색깔을 씌웠으며,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까지도 ‘적’으로 간주(김동춘 2015, 196)” 하는 극단적 적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곧 정치적 반대세력을 반민족적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단해야 하는 적으로 여기는 증오와 불신, 민족적 쇼비니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스텔·폴만·김동춘(2015)이 제시한 ‘반(反) 민주적’ 반공주의 다시 말해 파시즘적 반공주의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공주의는 민주 대 반민주 정치균열 하에서 반독재진영의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이승만 정부, 자유당과 민주당 등 보수세력이 주장했던 반공주의는 다양한 담론과 접합해 독재정권의 통치를 정당화해 주었을 뿐 아니라, 진보적 의제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문지영 2009, 204). 그 결과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이 하나의 목표 - 민주주의의 회복 - 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즉 근대화, 사회경제적 모순 극복,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 속에서 ‘빨갱이’로 인식되지 않기 위하여 민주주의 회복에 주력하였다.¹¹⁾

나. 진보당과 반공주의 - 대항 이데올로기의 정당화 기제

이데올로기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항 이데올로기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지배 정치 이데올로기, 대항 정치 이데올로기, 지배 사회 이데올로기, 대항 사회 이데올로기로 나눌 수 있다(손호철 1996, 44-45). 1950년대 지배 정치이데올로기가 반공주의라고 할 때, 이러한 반공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던 것은 ‘멸공’과 ‘북진통일’과 같은 구호였다(박태균 2015, 269). 이와 대조적으로 조봉암과 진보당을 비롯한 혁신세력은 ‘평화통일’, ‘피해대중의 구제’, ‘민주주의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진보당의 대항 정치 이데올로기를 ‘사회민주주의’로 해석하게 한다.¹²⁾

진보당이 대항 이데올로기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프랑크푸르트 선언(Frankfurt Declaration)’과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Bad Godesberger Programm)’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¹³⁾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은 1950년대 사회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은 선언이었다. 주요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자유 속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자유 없이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오직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다. ... **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민중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이것을 **견지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사회주의인터내셔널 1951; 강조는 인용자).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중요시 하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공산주의와 차별성을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다”, “사회주의는 오직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되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된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민주적인 다른 정당들과 동등**

한 자격에서 경쟁하여 국민의 다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다(아이힐러 1989, 168-170; 강조는 인용자)”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진보당 역시 강령 전문에서 자신들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변혁을 폭력적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해서 - 의회에서의 절대다수를 점함으로써 - 수행**하려고 한다. **정권의 교체와 이동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을 명언하는 바이다(진보당 1956, 82-83).

즉 진보당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한 새로운 건설”, “다른 정당들과 동등한 자격에서 경쟁하여 국민의 다수 지지를 획득”이라는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한편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다음과 같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사회주의 정책의 당면한 **경제적 목표는 완전고용, 보다 높은 생산,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이다. ... 공공소유는 현존하는 **사기업의 국유화, 자치체의 기업, 지역 공영기업,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협동조합의 형태** 등을 취할 수 있다(사회주의 인터내셔널 1951; 강조는 인용자).

이와 유사하게 진보당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증진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정권을 장악하고 이를 안정화하면서 반봉건적 성격이 농후한 우리의 후진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로 개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현 정권의 **국유대기업체 불하정책을** - 이러한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 **결렬히 반대한다**(진보당 1956, 83; 강조는 인용자).

대대적인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사회적 생산력을 크게 재고하는 한편 사회적 생산물의 공정한 분배에 의하여 사회적 정의를 옹기 실천함에** 있는 바 ... **사회적 부의 생산 없이는 민주적 자유의 참다운 실현은 도저히 서기(庶幾)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진보당 1956, 92;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진보당의 강령 및 정책은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경제적 민주주의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제 6 항을 보면 진보당이 자신들의 강령을 작성할 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이 드러난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저 발전 지역의 민중들은 **민족 해방과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사회적 의가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이들 지역에서 **사회주의의 주요한 적은 토착 금융재벌의 기생적 착취와 외국 자본가에 의한 식민주의적 착취**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들은 **토지개혁과 산업화 그리고 공공 소유의 확대와 생산자 및 소비자협동조합의 발전에 힘쓰면서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 노력한다(사회주의 인터내셔널 1951; 강조는 인용자).

진보당 강령에서도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제 6항과 같은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 해결책으로 국유기업의 불하정책 반대, 기간산업의 신속한 건설, 농업, 중소기업의 협동조직화를 제시하고 있다.

현 정권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은 매관자본계급과 특권적 관료이며, 그 경제적 기반은 일제로부터 인수한 국가적 독점기업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이다. 그 무능성과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제 기업체 운영에 실패한 현 정권은 - 일방으로는 ‘자유기업’을 주장하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타방으로는 스스로의 재정적 필요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 국영 제 기업의 불하를 실시하고 있다(진보당 1956, 81; 강조는 인용자).

이와 동시에 우리는 국가투자에 대한 기간산업의 신속한 건설, 농업, 중소기업의 협동조직화 등의 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자본을 공정히 보호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회생산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려고 한다(진보당 1956, 83;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프랑크푸르트 선언’,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진보당 강령, 정책’을 비교해 보면 진보당이 후발국가의 불리함, 냉전과 분단, 전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진보당은 지배세력에 의해 변질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당의 대항 정치이데올로기인 사회민주주의는 지배 정치이데올로기였던 반공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기존 연구들은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진보당의 반공주의를 일종의 선전구호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조봉암과 진보당 더 나아가 당시의 혁신세력에게 있어 반공주의는 정당성의 근원이자 궁극적 목표였다. 또한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공산주의에 대해 보인 태도를 살펴보면 진보당의 반공주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오로지 일당독재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러한 계급분열을 첨예화시키려 노력한다. 국제공산주의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도구이다. 이것이 정권을 장악한 곳에서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자유와 자유를 획득할 기회를 파괴해왔다. ... 부와 특권을 차지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간의 극심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새로운 계급 사회를 만들어냈다(사회주의 인터내셔널 1951; 강조는 인용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 진보당 역시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공산주의에 명확하게 반대하였다. 이것은 조봉암의 연설, 진보당의 강령 등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조봉암은 전향 후 지속적으로 반공주의를 천명하였다. 예컨대 조봉암은 “누구라도 경솔히 못 볼만큼 무비(武備)를 강화하는 동시에 ...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공산주의이론을 극복(조봉암 1955, 250)” 하여, “우리는 공산 침략을 격파하고, 공산권내 인민을 해방시킬 세계 자유진영의 선봉대(조봉암 1955, 238; 강조는 인용자)”로서, “계급독재사상을 배격한다. 공산당 독재도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강고히 반대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서중석 1999a, 65; 강조는 인용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폭력적 독재적이고 또 팽창주의적인 불세비즘을 단호 명확히 거부하고 배격하지 않을 수 없는 바 ...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시·유린하는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민주주의와 상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 ... 한국의 공산도당은 ... 신생 한국의 내부적 혼란을 크게 격화하려 하였다. ‘러시아 한국인’ 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공산역도는 ‘음모’, ‘테러’, ‘공갈’, ‘기만’ 등의 온갖 파괴적 수단으로 자주독립 통일의 민주한국건설을 적극적으로 방해 ... 드디어 그들의 상전인 크레믈린의 명령에 따라 죄악적인 동족상잔적 침략전쟁을 일으키어 (진보당 1956, 61; 63; 79-80; 강조는 인용자).

게다가 진보당의 강령 역시 위의 인용문처럼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보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반공주의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극우 반공세력과 보수반공세력의 반공주의와 진보당의 그것은 차이점을 보인다. 즉 “당연히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어야 (조봉암 1948, 76)” 한다며 사상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 “공산당을 불법화시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산당을 대중 앞에 내세워서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 것 (조봉암 1954, 188; 강조는 인용자)” 이라고 보며 정치사회 내 경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극우반공, 보수반공세력과 구별된다. 달리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금지,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허용하고 정치적 경쟁에 의해 반공주의를 관철(손호철 1996, 59) 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적’ 반공주의를 표방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공투쟁의 승리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반공주의가 대항 이데올로기를 중층결정하였다.

다. 1950년대 정치균열과 반공 이데올로기 지형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표 1 > 1950년대 균열구조 및 이데올로기 지형 14)

부문	이념적 지표	정치균열	지배이데올로기	지배담론	속성
국가	극우반공	반민주	반공주의	민족 국가 멸공 북진통일	반민주적
정치사회		민주		민주 반독재 멸공 북진통일	
				진보	민주 반독재 변혁 평화통일
시민사회	극우반공	반민주		민족 국가 멸공 북진통일	반민주적
	보수반공	민주		자유 민주 반독재 자주적 통일	자유주의적
	진보			민주 반독재 변혁 평화통일	사회 민주주의적

1950년대의 정치 지형은 민주 대 반민주 정치균열 속에서 극우반공, 보수반공, 진보진영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처럼 이 시기 모든 세력은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극우반공세력은 ‘민족’ - ‘국가’ - ‘멸공’ - ‘북진통일’ 을 주요 담론으로 하여 ‘반민주적’ 반공주의를, 보수반공세력 역시 반공주의를 외쳤다. 그러나 보수반공세력의 경우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요 담론이 달랐다는 차이를 보인다. 즉 정치사회가 ‘멸공’ - ‘북진통일’ 을 강조면서 ‘반민주적’ 반공주의를 표방했다면, 시민사회의 경우 ‘반공’ 기조는 유지하지만 ‘민주’ 와 ‘반독재’ 를 보다 강조하면서 ‘자주적 통일’ 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반공주의를 속성으로 한다. 사상계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시민사회의 경우 “자유세계론을 앞세워 통일 민족주의를 포함한 제 3의 중립지대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반공 통일의 정당성을 강조(장규식 2014, 298)”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냉전기 이념지형을 ‘전체주의 대 자유주의’ 로 그렸던 세계문화자유지부와의 관련성 속에서 극우반공주의와 공산주의 모두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장규식 2014, 292-295). 그리고 보수진영의 반공주의에 대한 태도 분화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의 반민주적 성향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의 과정 속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반면 진보진영의 경우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보수야당인 민주당의 부패, 타락한 정치 즉 관료적이고 매관자본적인 정치의 타파를 위해서 진보당을 결성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내부모순을 해결하고

자 하였다(박태균 1995, 275-279). 즉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이승만 정부는 대체되어야 하며, 이를 대체할 세력은 이승만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보수야당이 아니라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이며 이것은 불세비즘과는 다른 제 3의 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반공이라는 부정적·소극적 이념이 존재했을 뿐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이 모두 불분명했던 시절(권보드래 2011, 266)”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적 반공주의’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국제냉전 - 한반도냉전 - 국내냉전 구조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보수적인 가치 및 이념이 아닌 진보적인 목소리를 외치고자 하였지만, 당시의 이념지형 하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대치는 보수적 시민사회의 반공주의였다. 이것은 진보당 사건을 통해 조봉암의 죽음, 이후 4월 혁명 이후 부활한 혁신세력이 5·16 쿠데타로 몰락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 결과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 하에서 자유주의 진영과 진보 진영은 ‘반독재 투쟁’에 매몰될 수 밖에 없었고, ‘사회민주주의적 반공주의’는 ‘자유주의적 반공주의’로 대체될 수 밖에 없었다.

3. 나오며

1950 년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였다. 그런데 극우반공세력과 보수반공세력이 공유하고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에 확산시켰던 반공주의는 파시즘적 반공주의였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 파시즘적 반공주의는 생존 논리에 기초한 반공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히스테리적으로 변모하였고(김동춘 2015, 195),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가 ‘북진통일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 ‘반북한 이데올로기’, 때로 ‘반노동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얼굴로 등장했다(문지영 2009, 204)고 지적하는 것처럼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반공주의는 ‘반민주적’이고 파시즘적인 형태를 띠 수 밖에 없었다.

그에 반해 진보 세력의 반공주의는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반공주의에 공명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이것의 궁극적 목표로 대공투쟁의 승리 즉 반공을 넘어선 승공을 주장했다는 점은 반공주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항 이데올로기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고자 했던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나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에서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면서 주장을 펼쳤던 서구사회민주주의자들과 달리 진보당이 강령에서 당시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사회주의자나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반공주의에 순응하면서 정당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4·19 혁명을 통해 다시 열린 정치공간 속에서 등장한 혁신정당이 5·16 쿠데타로 인해 ‘정치적 시민권’을 잃게 된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반공주의조차 용납될 수 없었다. 따라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진보진영은 이후 극우반공체제 하에서 강화된 ‘반민주적’이고 파시즘적인 반공주의로 인하여 지하화하거나 민주 대 반민주 균열 하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반독재를 외칠 수 밖에 없었다.

해방 70년이 된 오늘날, 반공주의는 ‘반북주의’ 혹은 ‘중북주의’로 변화하여 냉전적 보수세력의 전가의 보도가 되어가고 있다. 냉전이 끝난 지 20년이 넘는 지금, 한반도는 다시금 냉전적 세계관의 각축장이 되고 있을뿐더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공주의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주

요 이데올로기이다.

注

- 1) 본 논문은 「RICKS 제 10 회 차세대포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토론 및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2) 신종대(2014)는 남북관계사를 분석함에 있어 남북의 상호대면, 동북아관계와 남북관계, 국내정치와 남북관계의 연관수준이라는 세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손호철(2011) 역시 한국정치를 분석함에 있어서 일국적 요인과 세계체제적 요인의 복합분석의 필요성 및 한반도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장집(2002)의 경우 냉전이 외부적으로 남북한 간의 적대적 분단체제를, 안으로는 보수적 반공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며, 이를 ‘국내냉전’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한반도 정치에 작용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냉전에 주목하면서, 냉전이 세 가지 수준의 구조(국제냉전 - 한반도냉전 - 국내냉전)에서 작용한다고 바라본다.
- 3) 반공주의(anti-communism)은 접두사 ‘anti’가 붙은 것처럼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국의 반공주의는 모든 좌파적 가치에 대한 반대, 공산주의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혹은 두려움, 역사성을 지닌 사회적 감성/감정으로 파악된다(권혁범 1998; 김동춘 2015; 이하나 2012). 여기에서는 반공주의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념과 접합될 수 있는 이념 체계로 규정한다.
- 4) 립셋과 로칸(Lipset & Rokkan 1967)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는 2개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4개의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s, 국가 대 교회, 중심부 대 주변부, 도시 대 농촌, 자본가 대 노동자)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서구정당체계의 성격이 결정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균열구조(social cleavages) 중 정치균열에 중점을 두고 “한 사회가 가지는 정치적 갈등의 내용과 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손호철 2011, 697)”, “정치사회 내의 갈등 혹은 힘이 시민사회에 구조적으로 투영된 대립축(김수진 2008, 316)”으로 바라볼 것이다.
- 5) 조봉암의 신당참여를 거부한 민주당이 철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이승만보다 더 친미적이고 반공적이었다는 점에서 박태균은 1950년대 보수야당의 성격을 극우반공적이라고 바라본다(박태균 1995, 230). 이 역시 보수야당과 진보진영,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의 보수 진영의 반공주의를 보다 세밀하게 살필 필요를 보여준다.
- 6)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은 알튀세르가 마르크스주의를 설명할 때 사용한 개념으로 “경제적 실천이 최종 심급에서 항상 다른 실천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실천의 여러 심급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다양한 수준에서 다른 모든 심급에 의해 결정(레퍼터 2014, 100)”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중층결정을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한국정치를 분석할 경우 반공주의가 여타 이념의 정당성의 근원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 7) 이는 ‘파시즘적인 민족주의를 통한 반공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민주의(후지이 다케시 2012, 250)가 이승만 정부 초창기부터 국시로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 8) 게지네 슈반(Gesine Schwan)은 독일의 반공주의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Schwan 1999; 김동춘 외 2015, 18에서 재인용). 사회민주주의 좌파의 반공주의, 자유주의적 반공주의, 반(反)민주적 반공주의(국가사회주의), 부르주아 계급의 좀더 부르주아적 부분의 반공주의가 그것이다. 남한의 경우 서독과 마찬가지로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다는 점, 군국주의(파시즘)의 폐해를 겪었다는 점에서 서독의 반공주의와 비슷한 형태의 반공주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펠·폴만·김동춘(2015)은 보수적·파시즘적 반공주의의 핵심 요소로 25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 핵심 요소 중 내셔널리즘/민족적 소비니즘, 우월성 콤플렉스, 증오, 불신, 반노조, 반노동자, 사회적 권리에 대한 반대가 이승만 정부의 반공주의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9) 후지이 다케시(2008)는 1920년대 나치가 독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 1차대전 승전국에 맞선 케말 파샤의 군사혁명에 독일 우익이 고무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장제스를 중심으로 한 중국 국민당이 파시즘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준 인물이 케말 파샤라는 점, 국민당의 핵심조직인 삼민주의역행사가 케말 파샤의 정책을 많이 참고했다는 점에서 저항 민족주의와 파시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10) 최장집(1993)은 이승만 정부의 제도화된 강권력 사용 - 국가보안법, 경찰, 군대 - 이 좌파세력의 근절을 넘어 보수주의적 반대세력도 침묵하게 하였다고 본다. 특히 한국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주의적 반대세력이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정치권력 및 경제적 기반의 상실을 겪었고, 이러한 힘의 불균형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사회경제적 배경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단결이 심화되었다는 점(최장집 1993, 163)은 민주 대 반민주 균열 등장 기반이 되었다.
- 11) 강정인은 보수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유지’라는 일차적 속성과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의 실천이라는 이차적 속성으로 구분하면서 미군정의 직접적인 지원 아래 분단 정부의 수립이 보수와 혁신의 경쟁과 대립이

‘체제외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남은 정치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세력의 독무대가 되었으며, 이들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일체의 움직임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로, 곧 체제의 적으로 규정되어 철저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강정인 2009, 55-57) 고 지적한다.

- 12) 이와 관련해서는 정태영(2009)을 참조할 것. 정태영에 따르면 진보당의 정치이념은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였다.
- 13)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1951년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열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제 1차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이다. 따라서 진보당이 창당될 때, 이 선언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주요 강령, 정책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은 진보당이 해산된 1959년에 발표되어 시기상으로 늦지만, 이 강령 역시 당시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주요 강령이기에 참고하였다.
- 14) 이념적 지표와 정치균열의 글자 크기는 힘과 세력의 크기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1 차 자료 >

- 국사편찬위원회. 2007. “주한 미국대사 무효, 대통령 후보 曹奉巖의 예상 밖의 선전과 그에 대한 반대 운동의 양상을 국무부에 보고.” 『자료 대한민국사』 26 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검색일: 2015년 10월 18일).
-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1951. “프랑크푸르트 선언.” 사회민주당. www.sdpnet.org. (검색일: 2015년 10월 1일).
- 조봉암. 1948. “헌법 초안 총평.” 정태영·오유석·권대복 편. 1999a. 『죽산 조봉암 전집 1』. 71-80. 서울: 世明書館.
- _____. 1949. “우리는 왜 개헌에 반대했나.” 정태영·오유석·권대복 편. 1999a. 『죽산 조봉암 전집 1』. 81-136. 서울: 世明書館.
- _____. 1954. “우리의 당면과업.” 정태영·오유석·권대복 편. 1999a. 『죽산 조봉암 전집 1』. 175-236. 서울: 世明書館.
- _____. 1955. “내가 본 내외정국.” 정태영·오유석·권대복 편. 1999a. 『죽산 조봉암 전집 1』. 237-294. 서울: 世明書館.
- 진보당. 1956. “강령, 정책, 당헌.” 정태영·오유석·권대복 편. 1999b. 『죽산 조봉암 전집 4』. 58-120. 서울: 世明書館.
- 東亞日報. 1951년 11월 8일자. 2면 “共產黨說 - 李博士의 路線 反對하는 政黨, 新黨聲明.”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검색일: 2015년 10월 20일).
- 愼道晟. 1955. “신당운동은 왜 실패했나? 2.” 『한국일보』. 1955년 4월 6일자.
- 張俊河. 1956a. “따뜻한 政治를 바란다.” 『思想界』 35호 (1956년 6월호). 12-13. 圖書出版 思想.
- _____. 1956b. “무엇을 위한 테로냐?” 『思想界』 40호 (1956년 11월호). 12-13. 圖書出版 思想.
- _____. 1958a. “自主·自立的 促進을 위하여.” 『思想界』 62호 (1958년 9월호). 16-17. 圖書出版 思想.
- _____. 1958b. “나라의 主人은 백성이다.” 『思想界』 63호 (1958년 10월호). 16-17. 圖書出版 思想.
- 朱耀翰. 1958. “對共 政策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思想界』 63호 (1958년 10월호). 150-157. 圖書出版 思想.

< 단행본 >

- 강정인. 2009. “보수주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강정인·김수자·문지영·정승현·하상복.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37-121. 서울: 후마니타스.
- 김동춘. 2015. “한국의 지배집단과 반공주의.” 김동춘·기외르기 스텔·크리스토프 폴만 외.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안인경·이세현 옮김. 175-196. 파주: 돌베개.
- 김수진. 2008.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서울: 백산서당.
- 레퍼터, 루크. 2014.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심세광 옮김. 서울: 엘피.
- 문지영. 2009. 『지배와 저항: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서울: 후마니타스.
- 박태균. 1995. 『조봉암 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_____. 2015. “196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의 진화.” 김동춘·기외르기 스텔·크리스토프 폴만 외. 안인경·이세현 옮김.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267-289. 파주: 돌베개.
- 제습, 밥. 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국가의 제자리 찾기』. 유문상·김문귀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 서중석. 1996.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1999a. 『조봉암과 1950년대 (상)』.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1999b.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2005. 『이승만과 정치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 손호철. 2011. 『현대한국정치: 이론, 역사 그리고 현실 1945-2011』. 서울: 이매진.
- 스첵, 기외르기. 폴만, 크리스토프. 김동춘. 2015. “머리말.” 김동춘·기외르기 스퉁첵·크리스토프 폴만 외.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안인경·이세현 옮김. 10-43. 파주: 돌베개.
- 아이힐러, W. 1989. “바트 코데스베르크 강령.” 이태영 譯. 『독일사회민주주의의 100년』. 165-190. 서울: 中央教育文化.
- 유법상. 2015. “한국의 반공주의와 노동운동: 반공주의의 내면화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 김동춘·기외르기 스퉁첵·크리스토프 폴만 외.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안인경·이세현 옮김. 302-320. 파주: 돌베개.
- 정승현. 2009. “급진주의.” 강정인·김수자·문지영·정승현·하상복.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260-333. 서울: 후마니타스.
- 정태영. 2009. 『조봉암과 진보당』. 서울: 후마니타스.
- 최장집. 1993.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 _____.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후지이 다케시. 2012. “『파시즘과 제 3 세계주의 사이에서: 족정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서 본 해방 8년사』. 서울: 역사비평사.
- Larrain, Jorge. 1983. *Marxism and Ideology*. Basingstoke: Macmillan.
- Lipset, Seymour M. Rokkan, Stein ed.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ree.
- Schwan, Gesine. 1999. *Antikommunismus und Antiamerikanismus in Deutschland. Kontinuität und Wandel nach 1945*. Baden-Baden: Nomos.

< 논문 >

- 권보드래. 2011.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1950-196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연쇄와 한국.” 『아세아연구』 제 54 권 2 호.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246-366.
- 권혁범. 1998.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통일연구』 2 권 2 호.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7-41.
- 모리 요시노부. 1989. “한국 반공주의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그 국제정치사적 기원과 제 특징 -.” 『한국과 국제정치』 제 5 권 제 2 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71-192.
- 문중섭. 2007. “1950년대 한국 정치지형의 일면 - 제 3대 대통령선거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시민주리학회보』 제 20 집 2 호. 한국시민주리학회. 63-86.
- 서중석. 1999c.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와 제 3의 길.” 『역사비평』 1999년 여름호 (통권 47 호). 역사비평사. 81-112.
- 손호철. 1990.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 -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 -.” 『한국과 국제정치』 제 6 권 제 2 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27.
- _____. 1996. “1950년대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 한국전쟁 이후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5 권.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41-79.
- 신중대. 2014. “남북관계의 분석수준과 주요 의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 30 권 제 3 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55-196.
- 유재일. 1997. “1950년대 한국정당체제의 형성과 그 정치적 의미.” 『社會科學論文集』 16 권 2 호.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7-64.
- 윤상현. 2006. “조봉암 (1899~1959)의 정치활동과 사회민주주의사상.” 『한국사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29-183.
- 이하나. 2012.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의 정치.” 『사회와 역사』 제 95 집. 한국사회학회. 201-241.
- 이현주. 2001. “曹奉巖의 평화통일노선에 대한 검토 (1946-1958).”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18 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5-233.
- 장규식. 2014. “1950~1970년대 ‘사상계’ 지식인의 분단인식과 민족주의론의 궤적.” 『한국사연구』 167 호. 한국사연구회. 289-339.
- 전강수. 2010. “평등지권과 농지개혁 그리고 조봉암.” 『역사비평』 2010년 여름호 (통권 91 호). 역사비평사. 298-328.
- 전재호. 2013. “해방 이후 이범석의 정치이념: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 권 1 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7-64.

- 정영진 . 2015. “1950년대 지식인의 자유주의 담론 연구 - 『사상계』를 중심으로 -.” 『사회와 철학』 제 29 집 . 사회와 철학 연구회 . 157-184.
- 정진아 . 2009.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통일인문학논총』 제 48 집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63-86.
- 조경란 . 2011. “1950년대 동아시아의 반공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검토 - 『自由中國』과 『사상계』의 대항담론 형성 가능성 -.” 『시대와 철학』 제 22 권 1 호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115-152.
- 후지이 다케시 . 2008. “제 1 공화국의 지배이데올로기 : 반공주의와 그 변용들.” 『역사비평』 83. 역사비평사 . 117-151.